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제 4 회 교구찬양대회

4월 7일 개최 예정

우리 교회 교구위원회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역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 행사에 새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교구 활동에 남자 성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오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제4회 교구찬양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금년에도 합창과 중창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합창부문에는 14개 교구가 모두 참가해야 하며 한 교구의 참가 인원은 적어도 6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합창부문 지정곡은 278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이다.

중창부문은 부부팀이나 가족팀을 선발하여 진행되는데, 예선은 4월 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N.M.C.와 고등부 중창팀이 특송을 불러 대회를 더욱 빛나게 된다.

각 교구는 연습 장소와 시간 계획과 함께, 우리 교회 대예배 찬양대의 지휘자나 반주자가 아닌 성도 중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찬양 순서는 당일에 추첨하여 정한다.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⑦

사랑하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갈릴리 홀을 나올 때마다 살며시 열려 있는 베다니 홀 문틈으로 오늘도 역시 우렁차게 흘러나오는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총현은 살아있고 영원하리라고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의 남자 성도들의 기도 운동이 그 수를 더해 가더니 이제는 가족들까지 모시고 나와 교회와 교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복음 확장을 위한 다락방 운동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시간을 주님께 찬양과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받아 시작을 하시는 모습도 장하거니와 남의 집까지 대신 지시기 위해 이토록 애타게 부르짖을 뿐 아니라 새벽

마다 성도간에 사랑의 교재를 나누는 모습은 차가운 세상에서 훈훈한 느낌까지 주며 우리 교회 전체에 일면 신선한 충격까지 주는 것 같아 당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운동이 총현의 구석 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고 싶다면 장소 핑계, 시간 핑계나 하며 주어진 복을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채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서 알뜰하게 쪼개어 온전히 바치는 이들도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총현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목사

고3학부모 초청 간담회

고등부는 학원전도부와 협력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신앙과 학습 관리를 위하여 오늘과 3월 4일 오후 1시에 소석관 507호에서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서는 입시 정보와 출제 경향, 학습 관리에 대한 김용숙 선생, 김성곤 선생, 구재완 선생의 주제 발표 후에, 입시 준비와 신앙생활에 관한 선배와 학부모의 간증이 있다.

요한전도 협의회
영성훈련 실시

우리 교회 요한전도회의 14개 지회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총현기도원에서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인 김광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영성 훈련을 실시한다.

200명의 회원 참여를 목표로 한 이 훈련은 전도를 위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올 한 해 동안의 전도회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

위임목사 동정

동유럽 목회자 세미나 위해 출국

예장측 신학원 교수 모임 주재
여전도회 임원들과 간담회

교회학교 제 I 부 부서별 계절학교 개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제 I 부에 속한 각 부서가 내일(2월 26일)부터 겨울 계절학교를 시작한다.

교회학교 제 I 부는 26일 아침 9시에 본당에서 연합으로 이종윤 위임목사를 모시고 개강예배를 드린 후 각 부별로 나누어 자체적으로 계절학교를 진행한다.

영아부는 정연희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27일까지 아멘홀에서 "꿈을 꾸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유치부는 김정자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소석관 205호에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초등 1부는 한용관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예수님처럼 자라자"라는 주제로, 초등 2부와 3부는 김연

이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각각 계절학교를 28일까지 개최한다. 또 초등 4부는 장혜순 전도사를 모시고, "믿음의 어린이가 되자"를 주제로, 초등 5부는 신표근 강도사를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초등 6부는 김창수 목사를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계절학교를 연다.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어린 침령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터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90년도
제2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1일 수요일, 2부 예배 시에 당회장 예종윤 목사의 집례로 90년도 제 2차 세례식을 거행했다.

예날 37 명의 교인이 세례를, 13 명의 어린이가 유배 세례를 받았으며 22 명이 입교하고, 4 명이 개종했으며 36 명은 학습을 받았다.

고등부 산상예배

고등부는 3월 11일 물안뎌에게 산상예배를 드린다. 해마다 산상 예배를 통해서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학생들에게 일깨워 온 고등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간의 협동심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다질 예정이다.

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여전도회의 신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도회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논하였다.

또한 이 목사는 지난 2월 22일 고신대 신학원, 개혁신학원, 합동신학원, 총신대 신학원의 교수들을 초청하여 교회 연합운동과 상호 학술 교류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 목사는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는 목회자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되어 내일(2월 26일) 출국한다. 약 10 일간의 일정으로 유고슬라비아 전체 목회자와 동유럽 5개 국가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이 세미나에서 이 목사는 한국 교회의 성장과 21세기를 향한 세계 선교 전략에 관하여 강의를 예정이다.

영어부
겨울 계절학교 개최

우리 교회 교회학교 III부에 속한 영어부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선교관 405호에서 겨울 계절학교를 개최한다. "선교사의 삶(The Life of a Missionary)"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계절학교의 강사로는 마일수 목사님과 테리파이 목사님이 수교하게 된다. 또한 요나서를 중심으로 생화 그리기, 수화를 통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각 나라의 고유 의식을 엮고 하는 연극 공연 등 영어부에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교회안내

주일예배	I부: 오전 7시 II부: 오전 9시 III부: 오전 11시 IV부: 오후 1시 English Service: 오전 9시 찬양예배: 오후 7시 ※III부에는 수화,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 통역
수요예배	I부: 오전 10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1-6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1-2부, 청년3-4부, 소명부, 영어부, 직장전도부, 새가정부, 새가족부, 사랑부, 예배담당, 학아부, 살롱교회대학
방송설교	기독교방송(837KHz) 주일 오후 7시
신앙	화요일~주일 오전 10시~오후 5시(전화 555-0684)
기도예배	주일 오후 12시 30분~오후 3시
일반	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전화 566-5122)



이 종 윤 목사

성경 강해

예수와 같은 이 없도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 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었느냐...” (요7:45~52)

바리새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악심을 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체포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보호와 평안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군병들이 하나님을 체포하려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시도한 예수 잡는 일은 계속 무위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때에 산헤드린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나타나 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 빈손으로 돌아온 군병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 갔던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것은 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 한 하속들을 감동시킨 예수님

하속들을 보낸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활동하셨지만 그렇게 바리새인 기도가 오지 않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를 군병들이 산헤드린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7:46)

이 보고를 통해 예수님의 교훈이 군중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도무지 법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와 권능, 비범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도저히 비교가 안되는 하나님인 것을 하속들도 연연 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은 군중 가운데 과격파가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 군중들이 관원들과 하속들에게 덤벼들까 봐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인간적인 모습, 하나님 되실 앞에 사람들이 잡으려 왔다가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 하속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요7:46). 이 질문은 하속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영향권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완전 시제로 기록되어 동작의 계속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는 것 같은데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합니다. 언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뿌린 씨앗에 반드시 싹을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미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창을 들고 옥문을 지키던 로마의 간수장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바울의 능력 있는 웅변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

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7:48,49)

여기에 나오는 당국자들이란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들이, 특히 제사장단을 가리킵니다.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 5경을 읽지 않아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금지 조항뿐 아니라 구전되어지는 규범들까지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위선을 행하여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여러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 니고데모의 변론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한번 찾아와서 중생에 대한 교리를 물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를 하였되 열심을 가지고 변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편에 서기를 매우 소원했지만 아직 완전한 헌신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요7:52)라는 사람들의 반박에 대한 니고데모의 변론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니라” (요7:51)라고 하며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요7:52)고 하며 니고데모의 변론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산헤드린의 당국자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격식까지 모두 무시한 채 예수님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못박아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선지자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분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방색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들이 넘어가고 율법을 범한 예수라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며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하는 방법도 한 편의 고소만 받고 그것을 근거

를 보내셨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입은 자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선재성(先在性)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 계셨고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신 예수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7:6)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셋째,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요7:37).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들을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신 분

로 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비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 독특하며 유일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원이 독특하고 세상에 오신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분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분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고 무리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7:46).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원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로 몰아 넣는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때에서 생수를 강이 흘러 나리라” (요7:38)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다름 등 모든 불의한 것들은 인간들의 죄에서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근본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길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성품이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결혼 후 나는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여 남편은 몇 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평소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늘 권유해왔다. 새벽이 되면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연년생인 두 딸을 낳기까지 나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다. 그런데 남편과 그의 시댁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8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동안 남편은 심한 위장병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했으며 불면증까지 겹쳐서 몸은 쇠약해져대로 쇠약해졌다.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보니 진실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피련하고 무지한 우리로서는 그때 당시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이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충동과 교회를 다니는 분만 만나면 못이기는 체 하며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 그 생각을 갖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엄경자 성도

바로 다음날 토요일 교회 집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나는 옆에 앉은 교인들을 따라 고개를 숙여 속으로 속삭여 하나님을 불러 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며 안도의 숨까지 쉴 수 있게 되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다. 교회에 나가길 너무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나간 지 20일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다. 나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민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그 후 역삼동으로 이사를 한 우리 가정

은 어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갈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는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주의 종들이 섬기는 교회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이 부유하며 살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였는지, 때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동안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민하던 끝에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로 작정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후 이틀째가 되던 날 '어떻게 해야 응답을 주십니까,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당시 남편은 심한 불면증으로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날밤 남편은 꿈 속에서 '이제 너희가 가게 되는

교회는 희망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남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우리 집 현관 문에 충현교회 교패가 단단하게 붙는 환상이 보였다고 했다. 같은 날 밤에 큰 딸과 나는 허허벌판 언덕에 웅장하고 창문이 아주 많고 돌벽으로 쌓은 두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를 보게 되었다. 꿈에서 봤던 나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충현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 몸가짐도 조심하게 되고 글수 깊이 스며드는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어종운 목사님 설교에 매주 많은 은혜를 받으며 항상 주일을 기다리며 산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의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가고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던 불면증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젠 잠자리에 누운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단잠을 곤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다.

신간안내

《요한복음 강해 1》

이종운 위임목사가 수요일 1, 2부 예배 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증거한 설교 내용이 《요한복음 강해 1》이라는 책목으로 간행되었다.

요한복음 4장까지의 강해 설교를 모아 놓은 이 책은 요한복음의 저자, 기록 목적과 특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및 주님의 교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충현교회 출판부는 충현의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길잡이가 되



고 있는 월간 가정예배지침서 《충현의 만나》 3월호를 발행하였다. 성도들은 이번호를 통해 빌립보서에 나타난 진리를 깨달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차질서를 지켜주십시오

- ◆ 차량 안내원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 ◆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십시오.
- ◆ 자동차 앞 쪽을 벽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십시오.
- ◆ 교회 정문에서는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 ◆ 지하 주차장에서는 시동을 걸고 오래 주차하지 마십시오.
- ◆ 차량 관리 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9 과 시조 아담의 범죄

성경 : 창3 : 6, 12, 13

요절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께 그도 먹은지라(창3 : 6)

찬송 : 187, 202

제 13문 : 우리의 첫 조상(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제 14문 : 죄란 무엇입니까?

답

죄는 :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제 15문 :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불순종).

(창3 : 6~8, 12; 전7 : 29; 요일3 : 4)

설명

자유의지란 누군가의 강요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조 첫 사람 아담에게 이와 같은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다. 오직 완전한 순종만이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질문

1. 사단은 어떻게 화를 유혹했습니까(고후 11 : 3) ?
2. 사단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요 8 : 44) ?
3.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누구에게 간가 시켜 했습니까(창3 : 12) ?
4.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찾고 읽어 보십시오(요 16 : 9; 롬 14 : 23; 약 4 : 17; 요일 3 : 4, 5 : 17)